



#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 어머니께

박O연 / 창O초등학교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뒤죽박죽이죠? 해가 나왔다.. 비가 왔다가..  
 제 마음도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엄마, 저는 지금 저의 굳은 결심을 말씀드리려 해요.  
 그때, 제가 4학년때, 제가 꿈이 없었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시체를 해부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법의학자' 라는 직업을 소개해주셨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 둘다 멋지다고. 저에게 어울리는 직업  
 이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엄마는 딸의 꿈을 존중해 주시고, 언니에게 칭찬도 잘  
 해주시니까 저도 칭찬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직업을 꿈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점점 그 직업이 싫어졌어요. 곤충도 징그럽고 쥐죽은 것도 못보는 제가 시체를 본다는게  
 두려운, 무섭고.. 엄마 아빠가 책을 빌려다 주시고, 자주 도움을 주시니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너무 죄책감이 클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꿈이 싫어졌어요. 엄마, 아버지의  
 너무 많은 관심, 그리고 시체를 본다는 두려움.. 단지 멋져서 시작했어요. 진짜로 제 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때, 저는 배설 일기장에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저는 그 비밀을 서만 가지고 있으니  
 답답했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캐릭터로 그림 기분이 나아  
 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바라는데로 결말도 썼죠. 그러다 점점 제가 이야기를 생각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나아지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읽으면 기분이 나아질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친구, 가족들에게도 자랑했어요. 제가 쓴 글을. 그건 제가 바랐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서요. 언젠가 부터 꿈이라는 곳엔 작가라는 직업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전로 캠프에 가면서, 여러 테스트를 보며 적합한 전로에 작가가 있는걸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에게 천천히 제 꿈을, 전로 캠프에 비유하며,  
 제 적성 직업에 작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요..... 엄마, 제 꿈은 법의학자가 아닌.. 작가예요.  
 단지 쉽고, 간단하고, 내가 하리니까가 아니에요. 그건, 제 진심이예요. 그냥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제 책을 보고 기뻐하는걸 보고 싶어요. 제가 해리포터, 타라  
 동권, 제르니모, 그림자매를 읽을 때 저 같아요.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요...

-엄마의 사랑스러운 딸,

O연원림. 2015년 7월 24일 (수)



#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 마음껏 이 세상을 그려나갈, 사랑하는 아들에게

심O주 / 학부모

“엄마, 난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는 가끔 이 말을 떠올리곤 해. 5살이 되던 이른 봄날, 넌 열심히 달력 뒷면에 그림을 그리다가 불쑥 그렇게 말했지. 작은 손에 크레파스를 보물처럼 꼭 쥐고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언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랐을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다랗게 성장한 네 모습이 엄마는 참 대견스럽기만 했어.

그렇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 너를 항상 보아왔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받아든 너의 적록색맹 판정은 너무나 충격이었어. 왜 하필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수없이 헛된 질문을 반복했지. 안 그래도 “무슨 남자에게 그림이냐”,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던 몇몇 주변 사람들이, 네 색깔 이상 판정이 당연히 네가 화가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속상하기만 했어. 되돌아보면 엄마가 참 나약했던 것 같아. 그런 무심한 이야기들에 마음이 휘둘릴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지.

하지만 이런 엄마를 서서히 일깨워준 것은 한결같은 네 태도였지. 어른들의 비뚤어진 시선에도, 친구들의 철없는 놀림에도 너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엄마는 그런 너를 통해 비로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위즈워드의 시구에 눈을 뜨게 되었어. 그리고 결심했지. 네 그 깨끗한 모습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그리고 네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이야.

사랑하는 아들이, 네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너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색깔 이상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마주하게 될 거야.

미술이라는 세계에서 너의 색깔 이상을 ‘원죄’로 여기지 않고 당당히 네 꿈을 펼쳐갈 네 모습을 생각하면 엄마의 가슴도 벅차오르는 것 같아. 네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인생의 기적을 퇴락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엄마는 잘 알아. “그림 그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다부지게 말하던 네 안의 그 아이의 목소리를 항상 기억하렴. 네가 좋아하는 그것, 네가 평생 하고 싶은 그것을 마음껏 쫓아가다 보면, 너의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거야.

2015. 8. 24

네 꿈을 힘껏 응원하는 엄마가